

## 에스겔 4:2와 21:22의 포위전쟁에 대한 모습 재현과 번역 제언

— 고고학적, 언어적 고찰을 바탕으로 —<sup>1)</sup>

임미영\*

### 1. 들어가는 말

열왕기하 18:9에서 아시리아의 임금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는 표현과 역대하 32:10에서 아시리아 임금 센나케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에서 우리는 아시리아의 전쟁 방법을 대표하는 단어로 ‘공성전(攻城戰, siege assault)’을 언급해 왔다. ‘공성전’이란 ‘정복하고자 하는 도시를 둘러싸 포위하고 식량이나 병력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항복을 이끌어내는 전쟁’<sup>2)</sup>으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19세기 중반 니네베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된 벽 부조에서도 아시리아가 이 전쟁 방법을 얼마나 잘 이용하여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였는지 드러났다. 이 아시리아의 전쟁 방법을 답습하여 더 잔인한 전쟁을 치른 나라는 바빌로니아로 우리는 에스겔 4:1-3과 에스겔 21:21-22에서 그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에스겔 4:2는 여호와가 에스겔에게 임박한 예루살렘의 포위로 인한 멸망을 생생하게 표현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군사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다가올 형벌의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죄의 심각성과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

\* Bar Ilan University, Israel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국제성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adiofpooh@hanmail.net](mailto:adiofpooh@hanmail.net).

1) 본 논문은 2024년 9월 대한성서공회가 진행 중인 『개역개정』 개정 분과 회의에서 제기된 번역 사안을 연구한 결과물이다. 최근 학문적 경향을 반영하여 국가나 사람 이름을 『표준국어대사전』 번역에서 사용한 명칭으로 기술하였다.

2) “공성전”, <https://ko.wikipedia.org/공성전> (2025. 2. 28.).

렘을 포위했던 아시리아를 이미 경험한 유다 백성에게 곧 닥쳐올 전쟁은 공포를 불러왔을 것이다. 마침내 에스겔 21:21-22는 바빌로니아 임금(네부카드네자르 2세, 기원전 604~562년)이 앞서 언급된 예언을 그대로 실행하여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유다 백성이 본 전쟁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시리아와는 반대로 바빌로니아는 전쟁의 이미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언급한 아시리아의 벽 부조와 이스라엘 내, 특별히 최근 발표된 라기스의 발굴 결과 같은 고고학적 자료들을 사용해 이를 재현해 볼 수 있다. 또한 에스겔 4:2와 21:22[27]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용어를 구약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하는 것을 선행하면서 각 단어를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살펴보고 전쟁 용어들에 대한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히브리어 원문<sup>3)</sup>과 한국어 성경 번역 비교

에스겔 4:2

וְנִתְּתָה עָלֶיהָ מְצוֹר וּבְנִיתָ עָלֶיהָ דֵּיֶק וְשַׁפַּכְתָּ עָלֶיהָ סֵלָה וְנִתְּתָה עָלֶיהָ מַחֲנֹת  
וְשִׁים־עָלֶיהָ כְּרִים קָבִים

『개역개정』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새번역』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공동개정』 그리고 그 바깥에 포위망을 새겨라. 또 감시탑을 세우고 옆에 돌더미로 축대를 쌓고 진을 둘러 치고 성벽을 허무는 쇠덩이를 사방에 늘어놓아라.

『새한글』 그 도시를 향해 포위망도 새겨서 그리고, 그 도시를 향해 포위 성벽도 만들어 세워라. 그 도시를 향해 흙언덕도 쌓고, 그 도시를 향해 군대도 배치해라. 그 도시를 향해 사방에 성벽을 부수는 무기들도 두어라.

에스겔 21:22[27]

בְּיָמֵינוּ הָיָה הַקָּסֶם יְרוּשָׁלַם לְשׁוּם כְּרִים לִפְתָּח פֶּה בְּרֹצֶחַ לְהָרִים קוֹל בְּתַרְוֵעָה

3) 포위 전쟁에 해당하는 각 용어의 히브리어 의미와 어원은 *The Brown 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2007)에서 인용하였다.

לְשׁוֹם בָּרִים עַל־שָׁעָרִים לְשַׁפֵּךְ סִלְלָה לְבָנוֹת דָּיִק

『개역개정』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새번역』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공동개정』 점괘는 오른쪽 예루살렘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덩이를 배치하고 돌로 축대를 쌓고 감시탑을 세우고는 도륙 명령을 내려 함성을 지르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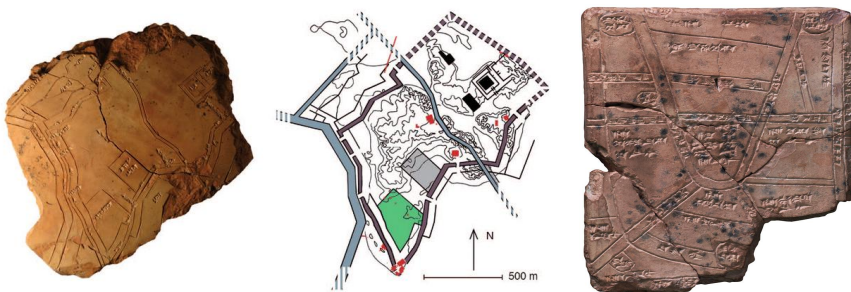
『새한글』 임금의 오른손에 예루살렘 길로 가라는 점괘가 나왔다. 그래서 임금이 성벽을 부수는 무기들을 배치하고 입을 열어 학살 명령을 내릴 것이다. 전쟁의 함성을 높이게 할 것이다. 성벽을 부수는 무기들을 성문들 맞은편에 둘 것이다. 흙언덕을 쌓고 포위벽을 세울 것이다.

### 3. 포위 전쟁

본 연구는 각주 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개역개정』 개정 분과 회의에서 제기된 번역 사안을 연구하면서 시작된 것은 맞으나 최근 한자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의 대화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룰’ 같은 전쟁을 다루는 컴퓨터 게임에 익숙하지 않다면 10대 청소년들에게 ‘공성전’이라는 단어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이해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성전’이라는 단어보다는 ‘포위 전쟁’이라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 전쟁을 묘사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포위 전쟁에 사용된 단어들은 ‘마쭈르(מָצוֹר)’, ‘다예크(דָּיִק)’, ‘술렐라(סִלְלָה)’, ‘카르(כָּר)’로 여호와와 에스겔에게 이 무기들을 예루살렘 성읍 지도와 함께 ‘레베나(לִבְנָה)’에 그리라고 말씀하셨다(겔 4:1). 레베나의 어원은 흰색을 의미하는 ‘라반(לָבָן)’으로 이스라엘의 지질이 흰색 성질의 석회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흙을 다져 만든 것에서 유래한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레베나를 “흙벽돌”로, 『새한글』은 “벽돌”로 번역하였다. 물론 레베나를 벽돌로 번

역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석회석 진흙을 다져 평균 높이는 한 뼘(약 20cm), 길이는 세 뼘(이집트 단위 탈라테, 약 60cm) 정도의 거푸집에 넣어 다진 후 태양과 바람에 말려 직육면체의 형태로 사용했고<sup>4)</sup> 이를 레베나라고 불렀다. 그러나 본문의 레베나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 곁에 세워질 포위 전쟁의 무기들을 덧붙여 그리기 위한 도구로 벽돌보다는 넓어 『개역개정』에서 사용한 “토판”이 보다 적합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니푸르에서는 기원전 1500년경으로 연대가 추정되는 두 고대 성읍 지도(<사진 1>)가 발견된 바 있는데 모두 납작한 형태의 토판에 그려져 있다. 이 지도들은 성내 행정 관리를 위해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성 안의 수로와 정원, 신전들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에스겔이 토판에 그린 예루살렘의 지도 역시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예루살렘의 지도는 바빌로니아의 임금에게도 들려 있었을 수도 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센나케립(기원전 705~681년)의 공격에 대비해 건설한 성읍으로(사 22장, 대하 32장) 열왕기하 20:12-15에 의하면 바빌로니아의 브로닥발라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는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브로닥발라단은 돌아가 예루살렘의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바빌로니아에 전수했을 수도 있다. 유다를 바빌로니아에게 주어 괴롭게 하기를 작정한 여호와와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지도를 바빌로니아 임금에게 허락했다(겔 21:19).

<사진 1> 이라크 니푸르에서 발견된 기원전 1500년경  
토판 위에 그려진 고대 성읍 지도



출처: 좌 [commons.wikimedia.org/wiki/File:Clay\\_tablet\\_containing\\_plan\\_of\\_Nippur](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lay_tablet_containing_plan_of_Nippur).  
우 [www.penn.museum/collections/object/98408](http://www.penn.museum/collections/object/98408).

4) 고대 이스라엘의 흙벽돌을 만드는 과정은 BibleWalks 500+, “Mud Bricks”, <https://www.biblewalks.com/mudbricks> (2024. 12. 10.)를 참조하라.

### 3.1. 마쭈르(ܡܙܘ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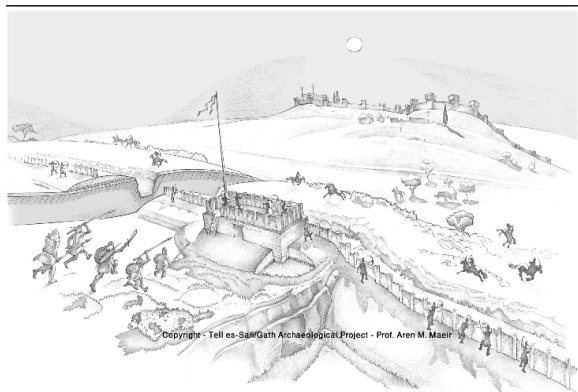
예루살렘 지도의 성벽에 더해진 포위 전쟁은 ‘마쭈르(ܡܙܘܪ)’로 시작된다. 명사 마쭈르는 ‘뭉다, 결박하다’를 의미하는 ‘짜라르(ܘܪܪ)’가 어원으로 이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로는 전쟁 중 ‘포위하다’라는 의미의 ‘쭈르(ܘܪܪ)’와 ‘둘러싸다’ 혹은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바짜르(ܒܘܪܐ)’가 있다. 마쭈르는 ‘둘러쌓아 완전히 봉쇄하다. 즉 벽을 쌓아 포위한 것’을 의미한다. 신명기 20:12, 19에서 짜라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성읍들을 ‘에워싸라 즉 봉쇄하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이 단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 다만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암몬을 포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삼하 11:1; 20:15). 짜라르는 아시리아(왕하 19:32; 대하 32:1; 사 37:33)와의 전쟁에 보다 자주 언급되는데 아시리아는 벽을 쌓고 봉쇄하여 포위 공격을 하는 전쟁 기술에 뛰어났다. 아시리아의 벽 부조에서 우리는 아시리아의 군사들이 적군의 성 앞에 서서 성벽을 향해 다양하게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리아의 포위 공격 기술은 바빌로니아에게 전수되었는데 성경은 바빌로니아 역시 열왕기하 24:1; 25:2; 예레미야 32:2; 37:5; 39:1; 에스겔 4:2; 21:22에서 포위 공격을 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포위 공격 기법을 우리는 사마리아를 에워싸기도 했던(왕상 20:1) 아람 임금 벤-하닷과 관련된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시리아의 진지르리(Zenjirli)에서 발견된 아람어 기록에 의하면 벤-하닷이 하맛을 공격했을 때 하맛의 임금 자쿠르는 “그들(아람인들)이 하드락(Hadrach, 하맛의 도시)의 성벽보다 더 높이 ‘짜라르’를 세웠고 그 앞에는 참호를 깊이 팠다(KAI 202, 10열)”고 말했다.<sup>5)</sup> 이러한 아람의 포위에 대한 묘사 중 참호와 관련된 발굴이 최근 이스라엘의 텔 에-사피에서 발견된 바 있다. 텔 에-사피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한 블레셋의 도시 중 가드로 추정하고 있으며 바르일란 대학교의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기원전 9세기 층의 파괴 흔적이 드러나면서 열왕기하 12:17의 하사엘이 침략의 주인공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앞서 언급된 아람 임금 벤-하닷을 죽이고 왕좌에 오른 자(왕하 8:15)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비록 성경은 하사엘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드를 쳐서 점령했다”고 짧게 언급했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불에 탄 건물, 유골, 함께 쌓여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수없이 많은 토기 등 파괴의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파괴의 흔적 가운데 아람인들이 판 것

5) J. Gibson, *Aramaic Inscriptions, Including Inscriptions in the Dialect of Zenjirli*, vol. 2 of *Textbook of Syrian Semitic Inscriptions* (Oxford: Clarendon, 1975), 8-9.

으로 보이는 참호가 있다(<사진 2>).

발굴 답사 초기 단계부터 가드를 찍은 항공사진에는 유적지 주변을 둘러싸고 2.5km 정도의 긴 흩선이 나타났었다. 이 선을 따라 발굴한 결과 현대가 아닌 고대에 누군가 3m 가까이 되는 깊은 웅덩이를 판다가 다시 흙으로 메꾼 사실을 알게 되었다(<사진 2> 좌). 고대 근동에서는 한 도시를 점령할 때, 공격군은 도시를 둘러싸고 깊은 참호를 판 후 반대편에 자신들의 군 주둔지를 세웠다(<사진 2> 우). 이 웅덩이는 도시를 포위한다는 의미와 함께 도시 민들이 성을 빠져나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로부터 물자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여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드를 발굴한 메이르(A. Maeir)와 구르-아리에(Sh. Gur-Arieh)는 참호의 반대편 군 주둔지로 사용된 언덕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와 유적지 자체에서 발견된 파괴의 연대를 비교했을 때 이 참호를 판 사람은 아람 왕 하사엘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시대의 것과 비교 연구하여 이 참호가 포위 공격 시스템 중 가장 오래된 적군의 참호라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사진 2> 텔 에-사피(블레셋 가드) 포위공격용 웅덩이 발굴 모습(좌)과 포위 성벽 재현 그림(우)



출처: 텔 에-사피, 블레셋 발굴팀, 임미영 소장

바빌로니아 역시 아람군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 봉

6) 임미영, “기원전 10-9세기 블레셋 중심지, 가드: 최근 텔 에 사피(Tel es-Safi) 성벽발굴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 (2017), 217; A. Maeir and Sh. Gur-Arieh, “Comparative Aspects of the Aramean Siege System at Tell es-Safi/Gath”, I. Finkelstein and N. Na’aman, eds., *The Fire Signals of Lachish, Studies in the Archaeology and History of Israel in the Late Bronze Age, Iron Age and Persian Period in Honor of David Ussishkin*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Fig 4 참조.

쇄하였을 것이다. 성 안의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 밖에 주둔하고 있는 바빌로니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포위 공격 시스템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에스겔 4:2의 마조르는 『개역개정』의 “에워싸되”의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봉쇄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새번역』, 『공동개정』, 그리고 『새한글』에서 사용한 “포위망”처럼 완전히 둘러쌌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조르는 바빌로니아의 임금이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된 모습을 묘사하는 에스겔 21:22에서는 언급이 없다. 대신 『개역개정』에서 공성퇴로 번역된 ‘카르(כַּר)’<sup>7)</sup>가 구절의 앞과 뒤에 두 번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카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포위 전쟁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2. 다예크(דַּיֶּק)

메이르와 구르-아리에의 앞서 언급된 재현 그림(<사진 2> 우측)에 의하면 참호 반대편 적군 역시 군 주둔지의 벽을 쌓아 올리고 탑을 세운 것을 볼 수 있다. 메이르와 구르-아리에의 이 벽을 열왕기하 25:1; 예레미야 52:4; 에스겔 4:2, 17:17, 21:22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의 포위 전쟁에 사용된 ‘다예크(דַּיֶּק)’로 보았다.<sup>8)</sup> ‘다예크’의 어원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히브리어의 ‘부수다’라는 의미의 ‘두크(דוּק)’나 혹은 같은 의미의 아람어 ‘테카크(ܬܝܟܐܝܬܐ)’와 유사하나 그 의미는 다르다. 다예크는 항상 ‘바나(בְּנָה)’ 즉 ‘짓다, 만들다, 건설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와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포위 시스템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유대인 영어 성경인 JB는 다예크를 포위용 탑(siege tower)으로 번역했다. 포위용 탑은 아래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카르(כַּר, 『개역개정』 공성퇴)의 일부를 높게 성벽의 높이까지 쌓아 올린 탑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벽 부조에 의하면 이렇게 높은 탑으로 지은 카르는 아슈르나시르팔 2세(기원전 883~859년)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사진 3>)으로 기원전 8세기 이후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기원전 745~727년)를 비롯한 아시리아의 임금들은 이러한 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사진 6>). 6개(양쪽에 3개씩)의 바퀴로 움직이던 카르는 후대에 4개(양쪽에 2개씩)의 바퀴와 높은 탑이 없는 구조의 보다 가벼운 시스템으로 변화를 했다. 그러므로 훨씬 후대의 포위 시스템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의 다예크는 이 카르의 탑 부분으로 보아서는 안

7) ‘카르(כַּר)’의 번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토론할 것이다.

8) A. Maeir and Sh. Gur-Arieh, “Comparative Aspects of the Aramean Siege System at Tell es-Safi/Gath”, 231.

된다.

<사진 3> 기원전 865년경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카르와 포위전쟁 모습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http://www.alamy.com).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다예크’를 사다리로 번역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 이후 아시리아 임금들의 벽 부조에서 우리는 성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군사들을 볼 수 있다(<사진 4>). 기원전 586년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벽 일부가 약 8미터에 도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sup>9)</sup> 이 사다리들의 길이 역시 상당히 긴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다리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다리 역시 동사 ‘바나’ 같은 ‘짓다, 만들다, 건축하다’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엄연히 ‘오르다’라는 의미의 ‘살랄(לָלַץ)’이 있고 여기서 파생한 사다리를 의미하는 명사 ‘술람(סֻלָּם)’이 있기 때문에 ‘다예크’를 사다리로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구나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사다리에는 많은 군사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성안에서 밀어버리거나 불을 지피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어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없다. 사다리는 포위보다는 공격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에스겔 4:2; 17:17; 21:22에 등장하는 포위용 무기인 ‘다예크’의 번역과는 맞지 않다.

9) A. Nahman and G. Hillel,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 finds from areas A, W and X-2 : final report. Volume 2 of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사진 4> 좌: 기원전 720~738년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포위 전쟁 속의 사다리

우: 기원전 669~631년 니네베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포위 전쟁 속의 사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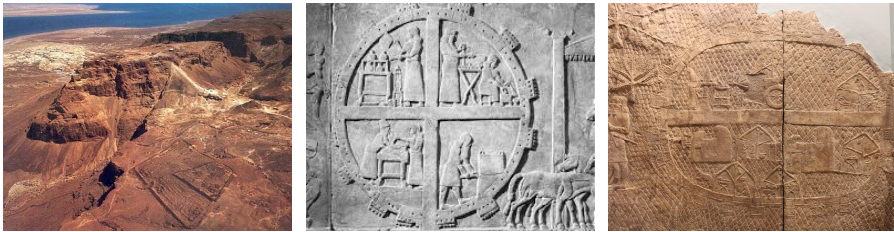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http://www.alamy.com).

그러므로 본고는 다예크가 앞서 아론과 구르-아리에의 의견처럼 적군이 포위 공격을 하기 위해 참호 반대편에 머물면서 만들어진 군 주둔지를 감싸는 성벽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예크가 ‘둘러싸다’라는 의미의 ‘사비브 (סָבִיב)’와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포위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 주둔지 성벽의 예는 이스라엘의 마사다 같은 유적지에서 볼 수 있다. 기원후 70년 마지막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주변보다 400미터 높은 마사다에 모여 있었다. 로마 군사들은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 마사다를 포위하면서 전쟁 기간 동안 머물 자신들의 요새를 주변에 지었다. 이때 요새를 위해 쌓은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다(<사진 5> 좌). 또한 아시리아의 전쟁을 묘사한 벽 부조에서도 전쟁터의 한 켠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린 군 주둔지가 있어 이곳에서 임금을 모시고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5> 중앙, 우).<sup>10)</sup> 이 성벽에는 탑이 있어 감시와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성 안의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고 무기를 정비하면서 전쟁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전이 될 때 이러한 군 주둔지를

10) C. Uehlinger, “Clio in a World of Pictures-Another Look at the Lachish Reliefs from Sennacherib’s Southwest Palace at Nineveh”, L. Grabbe, ed., “*Like a Bird in a Cage*”: The Invasion of Sennacherib in 701 BC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63, European Seminars in Historical Methodology 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221-305.

위한 성벽은 반드시 필요했다. 『공동개정』은 다예크를 감시탑으로 번역했는데 감시탑은 포위를 위한 성벽의 일부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번역은 아니다. 다예크는 ‘군 주둔지용 포위 성벽’이라고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사진 5> 좌: 기원후 70년경 이스라엘 마사다 앞에 건설된 로마 진영  
 중앙: 기원전 865년경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아시리아군 주둔지  
 우: 기원전 705~681년 니네베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아시리아군 주둔지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http://www.alamy.com).

### 3.3. 솔렐라(סֻלְלָה)

<사진 6> 좌: 기원전 720~738년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카르  
 우: 기원전 705~681년 니네베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카르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http://www.alamy.com).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포위 전쟁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 ‘솔렐라(סֻלְלָה)’이다. 솔렐라는 ‘올라가도록 짓다’라는 의미의 ‘살랄(סָלַל)’이 어원으로 솔렐라는 다른 곳보다 높이 올려진 장소를 말한다. 솔렐라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단어는 앞서 등장하는 ‘쏟아붓다’라는 의미의 동사 ‘샤파크(שָׁפַק)’이다. 무엇을 쏟아부어 높이 올려진 장소일까?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 모두 솔렐라를 “흙언덕”으로 번역했고 『공동개정』은 “돌 축대”로 번역했다. 솔렐라는 아시리아 임금들의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에사르하돈(기원전 681~669년)은 흙과 나무판 그리고 돌을 쌓아 인공으로 솔렐라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며<sup>11)</sup> 센나케립은 전쟁을 위해 성읍을 포위하고 석회석을 쌓아 언덕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2)</sup> 그러므로 솔렐라는 흙으로만 혹은 돌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 나무와 흙과 돌을 쏘아부어 만든 인공 언덕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언덕을 오른 것은 군사들이기도 했지만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은 바퀴가 달린 무기 ‘카르(כר, 아카드어 *kirru*)’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리아 전쟁 장면 중 기원전 9세기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시대의 카르는 평지에 서 있는데 앞부분이 높게 탑을 이루어 맞은편 성벽의 높이까지 닿아있다. 그러나 이후의 카르에서 탑은 사라지고 앞부분을 둥글려 카르 안쪽에 있는 군사들이 방패처럼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대신 이 카르는 성벽과 맞닿아 있는 언덕을 올라가 성문을 공격하고 있다(<사진 6> 좌). 그런데 열왕기하 18:9-19, 역대기하 32장, 이사야 36-37장에 등장하는 센나케립의 라기스 공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니네베의 벽 부조에서 우리는 성벽에 비스듬히 걸쳐 놓은 것 같은 널빤지 세켜 위에 카르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6> 우). 카르의 이층에는 이미 활을 쏘고 있는 군사 한 명과 카르에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는 군사가 있다. 카르의 아래층에는 바퀴를 굴려 카르를 이동하는 2명 이상의 군사가 있었다. 또 다른 널빤지 위로는 활과 창을 든 군사 여러 명이 올라가고 있다. 카르와 군사들의 무게를 감안할 때 마치 널빤지처럼 보이는 이 구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이 구조가 앞서 센나케립과 에사르하돈이 언급한 돌과 나무 그리고 흙 등을 쌓아 만든 인공 언덕이라고 보았다.<sup>13)</sup>

1973년 라기스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언덕을 보고 이갈 야딘(Y. Yadin)은 이곳이 센나케립의 인공 언덕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사진 7>)<sup>14)</sup> 이곳을 발굴한 우시쉬킨(D. Ussishkin)과 텔아비브대학 발굴팀은 마침내 아시리아

11) R. Borger, *Die Inschriften Asahaddons, Königs von Assyrien* (Bissendorf: Osnabrück, Biblio-Verlag, 1956), 10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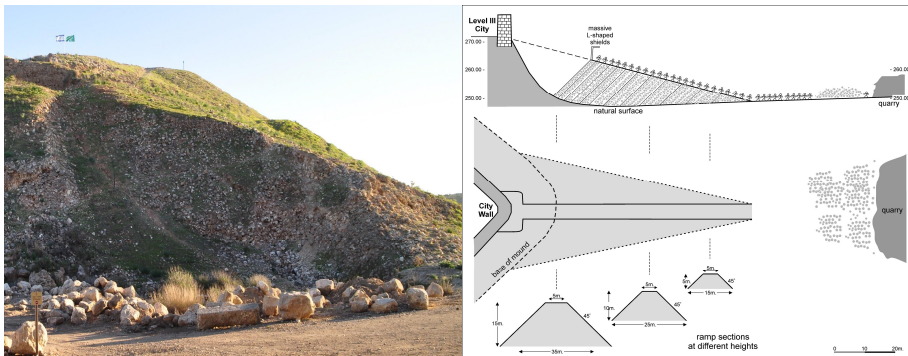
12) D. Luckenbill, *The Annals of Sennacherib*,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vol. II.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1924), 102:90.

13) G. E. Wright, “Judean Lachish”, *Biblical Archaeologist* 18 (1955), 11.

14) D. Ussishkin,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Monograph Series 22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2004), 699; Y. Garfinkel et al., “Constructing the Assyrian Siege Ramp at Lachish: Texts, Iconography, Archaeology and Photogrammetry”,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40:4 (2021), 417-439에서 재인용.

인공 언덕의 유일한 예를 발견했다.<sup>15)</sup> 50~75미터 길이의 언덕은 자연 언덕이 아닌 돌과 흙을 쌓아 만든 것이었다. 2013~2017년 사이 가펩켈(Y. Garfinkel)과 그의 발굴팀은 라기스를 발굴하면서 이 인공 언덕을 보다 세심하게 조사하여 그 형성 과정을 밝혔다.<sup>16)</sup>

### <사진 7> 라기스에서 발견된 솔렐라와 구성도



출처: Y. Garfinkel et al., 2021, <Figure 7>.

라기스 주변에는 숲이 없기 때문에 나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카르와 수많은 군사들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흙보다는 단단한 돌을 주로 사용하여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기스의 반대편에 위치한 언덕에서 돌을 채석한 후 바구니에 담아 이동하여 쌓았는데 “수백 명의 노동자가 석재 채석을 위해 하루 24시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참여했다.”<sup>17)</sup> 아시리아의 벽부조에는 이러한 건축 현장에 동원된 포로들이 돌을 담은 주머니를 등에 지고 힘겹게 경사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사진 8>). 이 언덕을 쌓는데 사용된 돌은 약 300만 개로 가펩켈은 매일 약 16만 개의 돌을 옮겨 25일 만에 건축을 완성했다고 계산했다. 카르의 바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경사로는 충분히 흙을 덮고 나무판자를 깔아 평평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라기스의 부조에서 카르가 나무판 위를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경사 언덕 위에 깔았던 나무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기스가 아시리아에 의해 파괴된 이후 이 언덕은 다른 적

15) D. Ussishkin,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1982), 49-58.

16) Y. Garfinkel et al., “Constructing the Assyrian Siege Ramp at Lachish: Texts, Iconography, Archaeology and Photogrammetry”, 417-439.

17) Ibid., 422.



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라기스 사람들에 의해 꺾여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가뵈켈은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 파괴되면서 이 언덕은 다시 돌과 흙을 쏟아부어 다져졌다고 주장했다.<sup>18)</sup>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언덕 위로 카르를 올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것이다.<sup>19)</sup>

<사진 8> 기원전 705~681년 니네베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돌을 나르고 있는 포로들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http://www.alamy.com).

### 3.4. 카르(כַּר, 아카드어 *kirru*)

‘카르(כַּר)’의 어근은 불분명하지만 ‘통통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주로 ‘숫양’으로 번역되었다(사 16:1; 암 6:4 등). 그러나 본고에 다루고 있는 에스겔 4:2와 21:22의 포위 전쟁에 대한 묘사 속에 등장할 때는 무기로 번역된다. 영어로도 *battering-ram*으로 번역되어 숫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숫양이 화가 났을 때 뿔로 들이받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본다.<sup>20)</sup> 카르는 성벽을 포위하고 그 성벽을 부수기 위해 맞대어 세워진 무기를 부르는 명칭으로 에스겔 26:9에서는 ‘맞서다’라는 의미를 함유한 ‘코벨(כִּבֵּל)’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공성퇴(攻城槌)’로 번역했는데 ‘포위 공격’을 의미하는 ‘공성’과 ‘망치’라는 의미의 ‘퇴(槌)’가 합쳐진 단어이다. 이때 한자 되는 추로도 읽혀 공성추라고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공성

18) Ibid., 430.

19) Ibid., 430.

20) “כַּר”, <https://biblehub.com/hebrew/3733.htm> (2024. 12. 20.).

전'과 마찬가지로 '공성되'는 생소하며 더불어 망치라는 의미로는 카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기의 모습과 예를 좀 더 살펴보고 적당한 단어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사진 9> 이집트 베니하산의 벽화에 그려진  
기원전 1900년경의 카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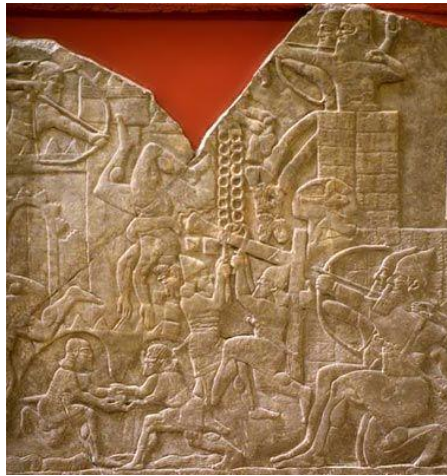
출처: wildfiregames.com.

카르의 예는 단순히 커다랗고 긴 통나무를 병사들이 직접 들고 성벽으로 돌격하는 것부터 바퀴를 달아 수레 형태로 만들어 밀고 가는 것이 있으며 더 발전한 단계는 수레를 타고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씌운 것이 있다. 카르의 가장 오래된 예는 이집트 베니하산에서 발견된 지방 귀족 케티의 무덤 벽화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기원전 1900년경의 벽화로 보고 있다(<사진 9>)<sup>21)</sup>. 아프리카의 한 성읍을 공격하고 있는 이집트 병사들 가운데 세 명의 병사가 뾰족한 지붕이 있는 상자 형태의 구조물 아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 중 하나는 성벽을 향해 긴 장대를 들고 있다. 이 벽화에서는 여러 사람이 장대나 큰 통나무를 들어 힘으로 반복하여 밀어붙여 성벽이나 성문을 훼손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병사들이 상모 모양의 구조물 안에 있는 이유는 성 안에서 화살을 쏘거나 불을 떨어뜨리는 방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 무기를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이들은 아시리아였다. 아시리아의 센나케립은 시리아와 가나안의 46개 도시를 점령하면서 카르(아카드어 *kirru*)를 사용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sup>22)</sup> 또한 아시리아 임금들의 원정을 묘

21) History on the Net, "Ancient Siege Warfare", [www.historyonthenet.com/ancient-siege-warfare](http://www.historyonthenet.com/ancient-siege-warfare) (2024. 11. 10.); M. Woods and B. Woods, *Ancient Warfare: From Clubs to Catapults* (Minneapolis: Runestone Press, 2000).

사하고 있는 벽 부조에서 시대별로 변화하는 카르를 볼 수 있다. 이미 기원전 9세기경의 벽 부조에서도 이동에 용이하도록 4개 또는 6개의 바퀴가 달려 마치 전차처럼 보이는 카르가 성벽 앞에 묘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시대에는 앞쪽에 반대쪽 성벽만큼 높은 탑이 있고 탑의 꼭대기에는 궁수들이 타고 있다. 점차 탑은 지붕처럼 둥글어졌는데 궁수들을 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단에는 뾰족한 대형 창이 꽂혀 있는데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지역의 성벽이 진흙을 쌓아 세워졌을 때는 나무로도 충분히 부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돌로 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나무보다 더 단단한 도구가 필요했고 카르에 꽂혀 있는 나무 창끝에는 금속을 씌웠다. 이 때문에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성벽을 허무는 쇠덩이 혹은 쇠망치”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0> 기원전 865년경 님루드의 벽 부조에 표현되어 있는  
카르의 모습



출처: 대영박물관 소장, [www.alamy.com](http://www.alamy.com).

그러나 길고 두꺼운 창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도구를 쇠만으로 만들기기는 쉽지 않다. 아시리아의 벽 부조 가운데 이 대형 창을 빼내기 위해 성 안쪽의 군사들이 쇠사슬을 내려 창에 걸어서 위로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2) J. B. Geyer, “2 Kings XVIII 14-16 and the Annals of Sennacherib”, *Vetus Testamentum* 21:5 (1971), 604-606.

(<사진 10>). 이를 막기 위해 아시리아 군사들은 고리를 이용해 창에 걸어서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이 동시에 묘사되어 있다. 이 대형 창이 무거운 금속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모습이 묘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 창끝에만 금속을 씌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나무로 만든 이 대형 창을 태우기 위해 성 안에서 횃불을 던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므로 나무로 만들고 끝에 금속을 씌웠던 도구를 쇳덩이로만 번역하거나 또한 긴 창 모양의 도구를 쇳망치로만 번역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8~7세기 이스라엘의 성벽들은 아시리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고 외벽의 경우 6미터 이상의 두께였다.<sup>23)</sup> 돌로 된 성벽을 계속해서 두드려 성벽을 부수는 과정은 꽤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보다 약한 성문을 부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아시리아의 벽 부조에서도 이 무기가 주로 마주하고 있는 곳은 성문인 것을 볼 수 있다. 『새한글』은 카르를 “성벽을 부수는 무기”로 “성문들 맞은편에 두었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카르의 쓰임새와 아시리아의 벽 부조에 표현된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번역이다.

#### 4. 제언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문화를 현대 한국어로 읽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와 장소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하다. 고고학적 자료들과 함께 과거를 읽어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소함을 좁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에스겔 4:2와 21:22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의 포위 전쟁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정리해 보면 ‘마쭈르(מָצוֹר)’는 ‘둘러쌓아 완전한 봉쇄’를, ‘다예크(דָּיֵק)’는 ‘포위를 위한 군 주둔지의 성벽’을, ‘솔렐라(סֻלְלָה)’는 ‘돌과 흙과 나무 등을 쌓아 만든 인공 언덕’을, 마지막으로 ‘카르(כָּר)’는 ‘성문과 성벽을 부수기 위한 무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읍이 그려진 토판에 에스겔은 “그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 포위를 위한 군 주둔지의 성벽을 짓고 돌과 흙과 나무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둘러 세웠다(겔 4:2)”, 바빌로니아의 임금인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

23) A. Nahman and G. Hillel,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 finds from areas A, W and X-2 : final report. Volume 2 of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괘용 활을 뽑았으므로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설치하고 돌과 흙과 나무로 언덕을 쌓고 포위를 위한 군 주둔지의 성벽을 세웠다(겔 21:22)”를 의미한다.

<주제어>(Keywords)

포위 전쟁, 포위, 포위를 위한 군 주둔지 성벽, 돌과 흙과 나무로 쌓은 언덕, 성벽을 부수는 무기.

siege war, siege, siege wall, *solella*, battering-ram.

(투고 일자: 2025년 1월 17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8일)

<참고문헌>(References)

- “כֶּרֶךְ”, <https://biblehub.com/hebrew/3733.htm> (2024. 12. 20.).
- “공성전”, <https://ko.wikipedia.org/공성전> (2025. 2. 28.).
- 임미영, “기원전 10-9세기 블레셋 중심지, 가드: 최근 텔 에 사피(Tel es-Safit) 성벽발굴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4 (2017), 208-229.
- BibleWalks 500+, “Mud Bricks”, <https://www.biblewalks.com/mudbricks> (2024. 12.10.).
- Bloch-Smith, E., “The Impact of Siege Warfare on Biblical Conceptualizations of YHW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7:1 (2018), 19-28.
- Borger, R., *Die Inschriften Asahaddons, Königs von Assyrien*, Bissendorf: Osnabrück, Biblio-Verlag, 1956.
- Garfinkel, Y., et al., “Constructing the Assyrian Siege Ramp at Lachish: Texts, Iconography, Archaeology and Photogrammetry”,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40:4 (2021), 417-439.
- Geyer, J. B., “2 Kings XVIII 14-16 and the Annals of Sennacherib”, *Vetus Testamentum* 21:5 (1971), 604-606.
- Gibson, J., *Aramaic Inscriptions, Including Inscriptions in the Dialect of Zenjirli*, vol. 2 of *Textbook of Syrian Semitic Inscriptions*, Oxford: Clarendon, 1975.
- History on the Net, “Ancient Siege Warfare”, <https://www.historyonthenet.com/ancient-siege-warfare> (2024. 11. 10.).
- Luckenbill, D., *The Annals of Sennacherib*,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vol. II.,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1924.
- Maier, A. and Gur-Arieh, Sh., “Comparative Aspects of the Aramean Siege System at Tell es-Safi/Gath”, I. Finkelstein and N. Na'aman, eds., *The Fire Signals of Lachish, Studies in the Archaeology and History of Israel in the Late Bronze Age, Iron Age and Persian Period in Honor of David Ussishkin*,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227-244.
- Nahman, A. and Hillel, G.,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The finds from areas A, W and X-2 : final report. Volume 2 of Jewish Quarter Excavations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Conducted by Nahman Avigad, 1969-1982*,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0.
- Penn Museum, “Tablet CBS13885”, <https://www.penn.museum/collections/object/98408> (2024. 11. 10.).
- The Brown 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2007.
- Uehlinger, C., “Clio in a World of Pictures-Another Look at the Lachish Reliefs from Sennacherib’s Southwest Palace at Nineveh”, L. Grabbe, ed., “*Like a Bird in a Cage*”: *The Invasion of Sennacherib in 701 BCE*, *Journal for the*

-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63, European Seminars in Historical Methodology 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221-305.
- Ussishkin, D., *The Conquest of Lachish by Sennacherib*,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1982.
- Ussishkin, D., *The Renew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at Lachish (1973-1994)*, Monograph Series 22, Tel Aviv: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2004.
- Wildfire Games, <https://wildfiregames.com> (2024. 12. 20.).
- Woods, M. and Woods, B., *Ancient Warfare: From Clubs to Catapults*, Minneapolis: Runestone Press, 2000.
- Wright, G. E., "Judean Lachish", *Biblical Archaeologist* 18 (1955), 9-17.

<Abstract>

**A Reconstruction and Translation Proposal of the Siege Imagery  
in Ezekiel 4:2 and 21:22:  
An Archaeological and Linguistic Approach**

MiYoung Im

(International Bible Museum / AnYang University)

In 2 Kings 18:9, when the Assyrian king Salmaneser ‘encircled’ Samaria, and in 2 Chronicles 32:10, when the Assyrian king Sennacherib ‘encircled’ Jerusalem, we read the term ‘siege assault’ used to describe the Assyrian tactic of warfare. A siege is ‘a war in which a conquering city is surrounded and besieged, and its surrender is forced by cutting off the supply of food or troops.’ In the Bible, as well as in wall reliefs discovered in the mid-19th century at Nineveh and other sites in the Middle East, the Assyrians used this method of warfare to demonstrate their power. The Babylonian Empire would follow after the Assyrians and emulate their “siege assault” warfare to wage an even more brutal war as we see in Ezekiel 4:1-3 and Ezekiel 21:21-22. In Ezekiel 4:2, YHWH directed Ezekiel to vividly describe the destruction caused by the impending siege of Jerusalem, using military imagery to convey the horror of the coming punishment and to emphasise the seriousness of sin and the consequences of disobedience to YHWH’s commands. The coming war must have struck fear into the hearts of the people of Judah, as they had already experienced the Assyrians, who had destroyed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laid siege to Jerusalem in the days of Hezekiah. Finally, Ezekiel 21:21-22 tells us that the Babylonian king (Nebuchadnezzar II, 604-562 BC) had laid siege to Jerusalem in fulfilment of the aforementioned prophecy. What did the war look like to the people of Judah at that time? Unlike Assyria, Babylonia did not leave behind images of war, however we can try to recreate it using archaeological sources such as the Assyrian wall reliefs mentioned earlier and the recently published excavations in Israel, especially at Lachish. Based on these sources, we can begin to understand the Babylonian descriptions in Ezekiel 4:2 and 21:22; the Hebrew words used for the Babylonian siege are mazor (מָצוֹר), which means ‘enclosure and complete blockade,’ dayek (דַּיֵּק), which

means ‘the wall of the monarch’s headquarters for the siege,’ solella (סֶלְלָה), which means ‘an artificial hill made of stones, earth, and wood,’ and finally, kar (כַּר), which means ‘a weapon for breaking down gates and walls (siege engine)’. Thus, on the tablet depicting the city of Jerusalem, Ezekiel writes, ‘They built the walls of the royal garrison for the siege, completely surrounding the city, and built hills of stone, earth, and wood, and encamped against it, and set up weapons for breaking down the walls (Eze 4:2)’, the king of Babylonia “drew in his right hand the bow of divination that was to go to Jerusalem, so he set up weapons of breaking down the walls, opening his mouth to kill and shouting with a loud voice, and he set up weapons of breaking down the walls against the gates of the city, and he built a hill of stone, earth, and wood, and he encamped against it, and he set up the walls of the garrison for the siege (Eze 21:22)”.